

삼위일체 대축일

기도서 314면 (C해)

제1독서 : 잠언 8, 22-31

제2독서 : 로마 5, 1-5

복음 : 요한 16, 12-15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 16, 13).

□ 강론



주여, 이 땅에 임하소서

박병준 신부

5월만 되면 우리는 허전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79년까지만 해도 5월은 신록의 계절, 성모의 성월, 노동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함께 있는 일년중 가장 즐거운 달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6년전 전두환 광주 학살사건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얼마 전에 말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광주학살의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았다. 마치 6.25때 공산당들이 우리 양민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것과 같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다.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너무나 알아듣기 어려운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 해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도 하느님처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라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학살의 대참상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우리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국민으로부터 보속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일이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고, 일터에서는 각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에서는 위정자와 국민이 국가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며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광주학살을 보고 누가 나는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계속되는 새로운 범죄들을 보고 나오는 상관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인간의 이런 엄청난 죄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당신 목숨을 우리를 위해 성부께 제물로 바치셨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보답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새 나라 새 백성으로 이 땅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는 일이다. 거짓을 보고 침묵만 지키는 것은 크나큰 죄악이다. 불의를 보고 회초리를 들지 못한다면 불의를 일삼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

하느님은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것처럼 이땅은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이 땅이 죄악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새 나라 새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주여!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소서! (고산 주임신부)



언제까지?

또 한 대학생이 분신자살을 했다. 누가 그를 죽게 했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대학, 그러기에 밤을 낮삼아 공부해서 기를 쓰고 들어간 대학인데... 하나뿐인 생명이기에 때로는 비굴하게라도 살아 남으려고 버려질 것을 다 해가며 지키는 목숨인데... 그는 왜 죽었는가? 이러한 악순환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난 15일밤 석가탄신 전야 제등행렬시에 서울 마포구에서는 무고한 시민 두 명이 경찰의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햇불을 들고 시위를 주도하던 대학생 2명을 잡으려다가 생긴 일이다. 교련복을 입고서 밀린 일을 하던 피해자의 말로는 "죄라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늦게까지 남아 일한 죄밖에 없는" 선량한 시민이 그만 욕을 당하고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의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 경찰간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진경들이 작업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5분여 동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힘약한 분위기에 제대로 말 한 마디 꺼낼 수 없었다. 엉뚱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루니 페모 학생을 어떻게 대할지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다. /김군과 일제의 입원치료비는 경찰이 지불했다. 격렬한 시위 진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여기에서 목격자의 증언과 한 경찰간부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

우리에게는 지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되어가고 있으니 문제다. 사태의 발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군인의 힘은 빌리지 않고 경찰관으로 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너스레,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비단 오지 않아도 자신의 부덕(不德)을 탓했던 옛분들이 그렇다. 잔인한 5월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숲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전주 레지아 승격 경축대회를 마치고

재 수 현

전주 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움이 성모성월이 시작되
는 86년 5월 1일자로 레지아로 승격되어, 지난 5월
18일 성신장립대축일에 「전주 파티마의모후 레지아」 경축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하
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이는 오로지
사랑스런 어머니의 따스하신 보살피심과 존경하는 박정
일 주교님을 비롯하여 지도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오며 진실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레지아는 1955년 5월 전통천주교회에서 「치명
자의 모후 브레시디움」으로 시작되어, 지난해 5월
27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창단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
하게 거행한바 있으며, 이제 31세된 성년 레지아로서 산
하에 3개 꼬미시움, 45개 꾸리아, 560개 브레시디움으로
13,000명의 단원(행동단원 8,000명 협조단원 5,000명)으
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전주 레지아는 평신도 사도적
단체의 주역으로서 세계 복음화운동의 최선봉에서 명실
상부하게 체제와 조직을 갖추고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를
적극 보완 추진하고 성체와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다음
중점사업을 정성드려 추진할 것입니다.

1.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생활
2. 미사참여와 영성체로 사는 생활
3. 예수 마리아와 함께 사는 생활

4. 성령 충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5.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
6.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활기에 찬 봉사생활
7. 평의회와 주회운영의 효율적 운영

이제 우리 전주 레지아는 도민 복음화를 위하여, 첫
째 기도로서 마리아의 10대 덕행으로 완전 무장하
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
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생활에 어김없
이 실천하면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며
자비로운 어머니의 눈빛만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
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
의 거룩한 마음을 항상 기쁘게 헤드리기 위하여 불철주
야 심혈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구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순교 선열들의 정
신을 이어받아 저희 교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주인
의식을 갖고 도시와 농촌에서 타교구 타종파보다 앞서가
기 위하여 5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혜와 슬
기를 다 모아 정성을 다 쏟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레지아에 가입하여 타인의 성화, 그
리고 교회를 위한 참다운 봉사대열에 적극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주 레지아단장)

5월은 가정의 달

남편의 십계

1. 결혼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사랑을 항상 아내에게 주라.
2. 식탁에 오른 음식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라.
3.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는 아내와 의논하는 습관을 가지라.
4.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하라.
5. 수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6.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라.
7. 가정불화에서는 한걸음 양보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8. 아내의 건강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라. 아내는 가정의 태양과 같기 때문이다.
9. 아내를 다른 여인과 비교하지 말라.
10. 정한 날짜에 외출을 함께 하는 것을 잊지말라.

※ 이번주 성서교실은 쉽니다.

아내의 십계

1. 혼자서만 말하지 말라. 남편에게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2.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말끔히 정돈하라.
3. 직장에 있는 남편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
4. 이웃에 대한 근거없는 험담을 퍼뜨리지 말라.
5.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 자랑을 하지 말라. 묵묵히 존경하라
6. 남편을 질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즉시 꾸짖도록 하라. 그리고 곧 잊어버리라.
7. 남편의 결점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교정시켜 나가라. 때로는 그의 좋은 점을 칭찬하라.
8. 남편을 식모로 만들지 말라.
9. 의상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지 말라.
10. 남편에게는 한적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지 말라.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술·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8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외과 내)

정신과학 무료세미나
(고도의 정신 및 두뇌활용법)
일 시 : 5월 26일 오후 2시·7시
5월 29일 오후 2시·7시
장 소 : 전주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주 최 : 한국 정신과학연구원

교 구 소 식

- ☆ **축! 겸진**: 동산천주교회, 6월 1일 10시30분, 주례-박정일 주교님
 - ☆ **축! 선전축성식**: 동산천주교회, 31일 오후 2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전주교구 성령쇄신대회: 27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전주 실내체육관, 회비-1천원(참석자 리본 현지에서도 배부함)
 - 2. 1지구 어린이 야외대잔치: 25일(오늘), 장소-덕진 왕봉(부모님 참석 요망)
 - 3. 전주교구 교리교사 단합체육대회: 6월6일 성심여고 운동장-각 본당 교사 참석바람
 - 4. 하나회 제2회 작품전시회: 25일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가톨릭센터 사회복지 회의실
 - 5. 5월 전주 시민강좌: 28일 오후 7시30분, 주제-한국경제와 민중의 삶
강사-유인호 교수, 장소-중앙천주교회, 주최-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6. 5월중 은혜의밤 및 철야기도회: 30일 오후 11시~31일 오전 5시, 효자동천주교회
 - 7. 소년 레지오 간부피정: 6월 1일 9시40분~5시까지,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대상-소년구리아 간부 전원 및 소년pr 성인간부 전원
 - 8. 전주교구 올드레아: 6월 6일, 장소-해성고 강당
참석예정자-본당 회장에게 신고해 주기 바람
※ 당일 접수는 본당단위로 하며 점심도 본당별로 배부함
 - 9. 전화번호 안내: 상관천주교회 신설-사제관 82-5079, 사무실 82-5434
효자동 천주교회 변경-사제관 83-3841
 - 10. 심성개발 책자판매: 가격-1천원, 교구청 교육국 0041
 - 11. 수녀연합회 6월 2일 정기총회 및 월례모임을 6월 9일로 연기합니다
- **신부님 임·출국**: 대기중이셨던 박성팔 신부님은 19일 출국(필리핀) 하였고, 그동안 로마 유학중이셨던 전중복 신부님이 18일 귀국하시어 20일부로 임지 원명본당에 부임 하셨습니다.

5지구(임·순·남) 사목회원 연수회: 일시-25일 오후 2시, 장소-남원천주교회
대상-5지구(임·순·남) 본당 사목회원(분과위원장급)
주제-86년도 사목지침(가정·본당·교구공동체)
강사-김동준·문규현·김진소·김환철 신부

※ 가정기도 독서: 1교린 12:4-11 북음: 마태오 20:29-34

잡 관!

신부님들의 늦봄 나들이

본당 사목에만 정신 쏟다보니 걸음마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운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던 차, 교구 젊은 신부님들이 지리산 등반회를 가졌다.
김병엽 신부님을 등반대장(?)으로 3박4일간의 지리산 정복을 위해 땀을 흘리며 더 열심할 다음 사목을 위해 대화와 자연속의 묵상, 기도 등, 신심단련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요즘 신부님들의 건강이 다들 안좋으신데, 신부님들요, 제발 이런 모임을 좀 자주 가지셔서 신심건강으로 우리들을 더 잘 이끌어 주십시오" - 어느 신자분 말씀이 고마웠다. 정말, 오랜만의 나들이인지라 다리 절룩이는 신부님은 안계신지요?

특별한 때만이 아니고... 장수·시기동본당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쌀모으기 운동을 년중으로 계속하고 있다. 장수본당(주임 강덕행신부) 애령회에서는 매월 2회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쌀모음을 계속하여 이웃을 돕고 있다는 호프한 소식. 또한 정주 시기동(주임 안용기신부) 본당에서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매월 1회 쌀모음을 계속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특히 지난번에는 현웃을 모아(300여벌) 옷가게에 보내기도. 흔하게, 어느 특별한 시기나 특별한 날에나 생각해 보는 불우이웃돕기를 년중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보는듯 마음을 호프하게 한다.

모래내 지업사

전화 72-8352

모래내시장 입구
(동양헬스클럽 건너편)

윤 돈보스코

심 루시아

(가) 성 전 축 성 (사)

초대합니다

작년 8월 25일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속에 첫 삽을 떴던 동산천주교회가 이제 완성되어 주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이 오시어 함께 기뻐해 주시면 그 기쁨 또한 클 것입니다.

축성일: 86. 5. 31(토) 오후 2시

동산천주교 선전축성위원회 위원장 박영철(요한)
동산천주교 사목회 회장 한상갑(바오로)
주임신부 권이부(분도)

요심이 (668) 김병오



전주교구 성령쇄신대회

- * 주제: 성체와 가정 -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 -
 - * 날짜: 1986년 5월 27일(화)
 - *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 * 장소: 전주 실내체육관
 - * 초청강사: 아일린 조지 여자
 - * 파견미사: 박정일 주교님
 - * 회비: 1,000원 (27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접수함)
 - * 준비물: 점심·식수
- ※ 초대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일린 여사의 강론과 치유중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18 전국대회시에도 하늘에 놀라운 표정이 있었음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75-3841
2-0915

제1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동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1. 박사미사 수녀·권마리아 수녀: 연중 피정 많은 기도 바랍
2. 성모의밤 행사: 본당 31일 저녁 8시 아파트 30일 저녁 8시, 많은 참여 바랍
3. 부녀회 월례회: 일정변경, 26일 월요일 아침 10시30분 어머니미사 후
4. 제1지구 어린이대잔치: 금일 오전 11시 덕진 왕능에서,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바랍
5. 구역봉사자 모임: 29일 저녁미사 후
6. 첫영성체자 교리: 6월 3일부터 내일 오후 4시~5시 본당은 소성당에서, 아파트는 강당에서 부모님들 관심 부탁드림
7. 유아영세식: 31일 오후 3시 대부모와 오후 2시에 사무실로
8. 경남 산청 나환자촌 방문: 동신자의 모후 및 청년회 다녀왔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9. 금주전례: 해설-김원준, 독서및 봉헌-손소부 부부 신자들의 기도-윤석연 부부, 촛불봉헌-최봉규부부
차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및 봉헌-허경석부부 신자들의 기도-최제인 부부, 촛불봉헌-유점호부부
□ 지난주 봉헌금: 525,920원 교무금: 402,600원 신축금: 136,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 6월은 예수성심성월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임원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 성모의밤: 29일 저녁 8시, 단제-꽃·화분·기도 봉헌 개인-초 봉헌
3.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원장수녀님 지도 매 목요일-본당신부님 지도
4. 대학생회 임원개편: 회장-박중호, 부회장-조제성·임영희
5.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정운주, 부회장-백복순, 총무-박성희, 회계-진양순
유치부 자모회장-이정순, 1학년-최희숙, 2학년-백정숙, 3학년-유영자, 4학년-허두레, 5학년-김운자, 6학년-구정자
6. 프란치스코 삼회(엘리사벳 형제회): 오늘 오후 2시
7. 주일학교 소풍(1지구 어린이 대잔치): 오늘 덕진 왕능에서, 오전 9시 본당 출발, 부모님들 참석바랍
8. 아치에스 행사: 6월 1일 공식미사 후 단원, 예비단원, 협조단원 전원 참석바랍
9. 사순절 저금통: 3개 16,125원 누계-217개 1,202,511원
10. 금주 형소: 월-사도의모후pr, 토-자비의모후pr 차주 형소: 월-평화의모후pr, 토-구세주모친pr
11.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강만준 ②이주자 봉헌-오영열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최희숙 ②천진 봉헌-김정두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9,500원 교무금: 629,90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오늘 어린이미사 없음: 덕진행사 관계로 (오전 11시-오후 4시)
2. 전주교구 성령쇄신대회: 27일 10시~오후 5시 전주 실내체육관, 점심 지참, 참가비-1천원

- 3. 성모의밤: 31일 저녁(꽃·초 봉헌 준비해 주세요)
4. 교무금 납부주일(다음주일)
□ 지난주 봉헌금: 116,750원 교무금: 59,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성모의밤 행사: 31일 저녁 7시30분 1부-미사, 2부-성모의밤 꽃·초 봉헌-각 단체 및 개인
2. 주일학교: 86년 어린이 대잔치, 장소-덕진 왕능 일시-오늘 오전 11시~오후 4시
3. 제2성당 예비자교리반: 모집중이오니 많은 참여바랍
4.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7시30분에 2성당에서 있음 ※ 본당 수요일미사 없음
5. 구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6. 자모회: 3일 오전 10시30분
7. 사목회: 29일 오후 8시
8. 병성체: 6일 오후 2시
9. 예비자교리: 학생-토요일 오후 6시 일반-일요일 공식미사 후, 화요일-오후 7시30분
10. 레지오 목의행사: 17일, 충남 연풍성지 순례
11. 사목방문: 6월 10일 오후 3시에 있음
12. 제2성당 어린이 첫영성체교리: 6월 3일부터 20일까지 오후 5시~6시에 국민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사무실에 신청바랍
13. 사제양성후원금 심의: 1구좌 2만원, ※ 1구좌 이상 신인도 가능함, 많은 참여바랍
13. 금주봉헌: 본당-조정웅 부부, 2성당-박경환 부부 차주봉헌: 본당-김낙균 부부, 2성당-김길문 부부
14. 차주전례
본당 공식미사: 해설-남정호·고정수 독서-①김낙균 ②조정웅
제2성당: 해설-함문권, 독서-①김길문 ②박병환
□ 지난주 봉헌금: 제2성당-109,220원, 본당-273,170원 계-382,390원 교무금: 127,500원 미수금: 142,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1. 성마리아 구리아: 오늘 오후 2시
2. 주일학교 소풍(1지구 어린이대잔치): 오늘 장소-덕진 왕능(부모님 참석요망)
3. 전동 푸르실로 울뜨레아: 26일 저녁미사 후 당일 울뜨레아에서 저녁미사 봉헌함, 전원 참석바랍
4. 성모의밤: 31일 오후 7시30분 이날 초·꽃 봉헌있습니다
5. 사목회·글라과 형제회·성가정회: 다음주
□ 지난주 봉헌금: 975,630원 2차헌금: 452,920원 교무금: 468,5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성모의밤: 31일 저녁 8시
2. 교구 성령쇄신대회: 27일 오전 10시, 실내체육관
3. 사목방문: 29일 3단지 동편 2반
4. 주부 성서대학: 28일 10시-마르코복음④
5. 감사합니다: 철쭉 7주-정상호
6. 오늘 모임: 유아세례-10시, 자모회-11시30분
7. 은혜의밤(힐야기도회): 30일밤 11시부터
□ 지난주 봉헌금: 424,200원 교무금: 231,000원